

불꽃교회 찬양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최태용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5년 5월

Copyright © 2025 Taeyong Choi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THE IMPACT OF PRAISE ON THE FAITH JOURNEY OF THE CONGREGATION AT HOLY FLAMES CHURCH**

Taeyong Choi

Holy Flames Church, Seoul, Korea

This paper explores the laying down one's own righteousness in the life of faith, reflecting on who is truly worthy of praise and with what heart one should worship. It explains how musical elements used in worship services can be expressed in various ways and diagnoses the problems hindering church growth, offering solutions for revival. Through this approach, the paper clarifies what praise is and why it should be given.

The changes in worship brought about by COVID-19 have altered the way worship and praise are offered to God, turning them into means of personal satisfaction. People may shout that they are praising God, but in reality, their praise is not truly directed toward Him. As a result, even their faith in the Lord has been shaken. Both the church and its members must remain entirely focused on God. Even for a brief moment, if one turns their eyes away and seeks to glorify themselves, it may not be visible to others, but it is impossible to hide from God's eyes. The musical elements within the church should serve only to exalt the name of our Lord and give Him glory, yet pride and

foolishness often stand in the way of truth. When believers worship with all their hearts, the chains of weakness and sin are broken.

I pray the Holy Flames Church will be broken down negative attitudes, pride, sin, and preconceived notions that have taken root within the church, pressing forward toward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so that they may offer praise that is truly pleasing to God

Praise is one of the privileges granted by God, and therefore, believers should fully enjoy this privilege. As they give thanks for the grace they have received, their praise should spread from their lips to every corner of the church and beyond, reaching the world just as the gospel of God's kingdom was delivered to the Gentiles. In this way, the church fulfills its mission of bringing life and restoration to the local community.

As we worship together with fellow believers, we strive to offer worship that is pleasing to God and that He delights in. While technical aspects are important, maintaining a pure heart and allowing it to be beautifully filled with His grace should be our greatest expectation.

May the genuine and wholehearted praise that God receives the Holy Flames Church and the lives of its members. As God's chosen people remain faithful to their identity, may our worship remain alive, and through the greatness of praise, may we experience the works of restoration and a victorious life.

## 국문초록

### 불꽃교회 찬양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

최 태 용

불꽃교회, 서울, 대한민국

이 논문은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의는 내려놓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누구이며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예배 안에서 사용되는 음악적 요소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하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간다. 이 방법을 통해 찬양이란 무엇인지, 왜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설명한다. 코로나 19로 예배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개인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 변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소리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기에 주를 향한 믿음 조차도 흔들리게 됐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아주 잠깐이라도 한 눈 팔고 나를 드러내는 모습은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음악적인 요소로 인해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영광 돌려야 하지만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진리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막아 서게 된다. 성도가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연약함과 죄의 사슬을 끊어지게 된다. 불꽃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 드리기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자리잡은 부정적이고 교만하고 죄들과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천국복음을 향하여 전진하기를 바란다.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성도는 그 특권을 누리면 된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이 성도의 입을 통해 교회 구석 구석에 퍼져 나가고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 이방인들에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처럼 지역을 살리고 세워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란다. 함께 동역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며 아름답게 채워 나갈 그 은혜를 기대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되고 온전한 찬양이 불꽃교회와 성도의 삶의 가득하며 택함 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 있고 찬양의 위대함으로 회복의 역사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한다.

## 목차

감사의 글 .....	ix
I.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방법 .....	4
II. 찬양의 의미와 목적 .....	7
A. 찬양의 의미와 목적 .....	7
B. 성경에 나타난 찬양 .....	15
C. 성전에서 사용된 악기들 .....	17
D. 찬양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 .....	19
III. 찬양의 기능적 역할의 대한 고찰 .....	29
A. 현대 찬양의 의미와 목적 .....	29
B. 현대예배에 찬양과 음악의 중요성 .....	30
C. 찬양이 주는 영향력 .....	32
IV. 불꽃교회 음악부와 현황 .....	36
A. 불꽃교회 음악부와 찬양 사역의 소개 .....	36
B. 불꽃교회 찬양 사역의 현주소 .....	47
V. 성도가 바라보는 불꽃교회 찬양 .....	56
A. 사역자와 성도가 바라본 불꽃교회 찬양(질문) .....	56
B. 찬양사역자로서 바라본 불꽃교회 .....	71
VI. 결론 .....	74

참고문헌 .....78

##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잘 마쳐지기까지 함께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나아갈 사명의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또한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조언과 지도를 해주신 교수님들과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 기도와 응원으로 힘이 되어주신 사랑하는 양가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아내 이다혜 사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 논문이 결시을 맺기까지 기도와 배려해주신 불꽃교회 공성훈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부담임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논문이 완성되기 위해 도움을 주신 방진현 전도사님, 박예찬 전도사님, 조영주 장로님, 김성진 권사님, 진선미 집사님, 문지은 청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찬양은 남녀노소,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예배와 예배자에게는 꼭 필요한 경배의 수단이다. 앞으로 목회의 여정 속에서 부족한 중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과 주님의 이름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전달되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더욱 귀하게 쓰임 받는 목회자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5년 5월

최 태 용

## 제 I 장

### 서 론

#### A. 연구의 목적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다. 어릴 적 대중가요를 듣는 것보다 찬송가를 먼저 듣고 부르던 어린아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 가사의 뜻도 모르고 부르던 찬양이 어느덧 나의 고백이 되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처음 찬양팀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는 친구와 함께 악기를 배우게 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그 당시는 교회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던 시절이었다. 고등학생이 됐을 때 담당 전도사님의 권유로 찬양인도를 시작하게 됐다. 노래를 부르는 방법도 모르고 악보도 볼 줄도 모르고 악기는 베이스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만 연주할 수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며 찬양인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때가 있었다. 그 시간을 지나 이제 찬양인도자로 사역한지 20년이 되었다. 20년을 찬양인도자로 리더로 지내면서 유명하고 실력 있는 인도자는 아니었지만 그 시간 동안 많은 배움과 감사한 경험들이 많았다.

대학교 시절 한 강의 과제를 준비한 적이 있다. 그것은 ‘앞으로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지’를 발표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장년, 청년, 청소년, 아동이

나뉘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마음으로 찬양하는 소통하는 예배, 서로 축복하는 예배를 드리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 하나의 과제를 끝내기 위해 적은 글이었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의 목회에 스며들었고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고민하며 지금까지 왔다.

찬양인도자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그 앞에서 서는 게 너무 좋았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내가 취하는 모습, 내 이름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성도의 감정을 건드리는 곡을 준비하고 그런 멘트를 준비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예배 중에 깨닫게 되면서 이런 어리석은 내 모습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내가 언제부터 사람을 보면서 예배했지? 내가 언제부터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서 찬양했지?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선곡이 좋았네’, ‘이 멘트 잘했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찬양인도자로 섬겼던 모든 예배와 예배자들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찬양을 아주 단순히 예배를 준비하는 음악으로 여겨서 예배시간에 늦거나,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에 부르는 준비 찬양으로, 또는 배경음악이라 생각하고 예배가 아닌 예배를 서포트 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곤 한다. 이처럼 찬양이 예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 이런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찬양팀 사역에서 이제는 찬양으로 어떤 예배를 드릴지, 성도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지 고민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 졌다.

찬양을 하는 이유와 찬양을 받으시는 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찬양이 성도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켰을 때 교회에도 큰 영향이 있었다. 모든 예배에 제약이 생겼다. 물론 찬양은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이었다. 찬양팀과 찬양대를 비롯해 심지어는 사회자나 설교자도 마스크를 착용했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예배가 회복되면서 예배드리는 회중들 간에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때도 찬양팀과 찬양대는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지 못하였다. 악기연주가 없고 찬양대가 없어도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 그러나 회중들의 반응은 달랐다. 이러한 표현이 올바르게는 않겠지만 ‘예배가 조용하다’, ‘예배가 지루하다’. 찬양이 좋은 음향 시스템과 악기들이 있어야 은혜로운 예배로 여겨진다는 것에 조금은 충격이었다. 헌신자들은 다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자리를 너무도 그리워했다.

팬데믹 시대에 예배의 모습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다. 변화하는 시기에 맞춰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기도와 고민은 멈출 수 없게 되었다. 변화한 시대에 맞춰 성도의 요구들도 다양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요구하는 내용들이 점점 본질을 벗어난 것들이 많았다. 찬양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가 받으시는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보다 내 이름을, 내 자녀의 이름을 알리는데 급급했다. 좋은 장비와 실력이 바탕이 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찬양은 더 이상 찬양이 아니라 세상 음악과 다를 게 없다.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현재 예배에서 사용되는 많은 멀티미디어 장비들은 비싼 만큼 그 값을 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장비가 없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과 연예인처럼 자신을 보이려는 행동은 가짜 신앙이다. 비본질이 본질을 뛰어넘은 상황이 된다. 교회 현장에서 악기 연주자들은 ‘자신의 소리가 작아서 더 키워 달라’ 하고, 청중들 중에서는 ‘찬양단에 누구 목소리가 시끄러우니 소리를 줄여라’ 고 말하는 것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데<sup>1</sup> 우리는 반대로 겉으로 화려한 것만 쫓아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다.

찬양사역자로, 불꽃교회 음악목사로 교회 안에 성도와 수많은 예배자들에게 찬양이 어떤 의미일까? 찬양을 통해 받는 것은 무엇이고 찬양을 통해 경험했던 은혜는 무엇이며 찬양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숙제가 되었다. 교회 공동체 화합과 개인 신앙의 큰 영향을 미치는 찬양에는 분명한 힘이 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만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드리는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찬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많다. 찬양을 통해 변화 받기도 하고 치유받고 회복함을 얻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심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

## B.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불꽃교회 찬양과 성도의 신앙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sup>1</sup> 사무엘상 16 장 7 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시를 보느니라”

찬양의 정의를 정리하고 현대에 사용되는 찬양의 의미와 목적, 찬양의 기능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리고 불꽃교회 성도에게 찬양이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 불꽃교회 찬양과 음악의 역사를 살펴보며 예배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회중의 이야기를 통해 불꽃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찬양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그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연구 한다.

### 1. 찬양의 의미와 목적

- 찬양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설명한다.
- 성경에 나타난 찬양에 대해 정리한다.
- 현대 찬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설명한다.

### 2. 찬양의 기능적 역할의 대한 고찰

- 현대예배에서 사용되는 찬양이 가지는 기능과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 현대예배에 찬양의 역할과 음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예배에 가지는 비중에 대해 설명한다.
- 찬양이 주는 영향력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한다.

### 3. 불꽃교회 음악부와 문제점

- 불꽃교회에 찬양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한다.
-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다.

### 4. 성도가 바라보는 불꽃교회 찬양(인터뷰)

- 성도가 바라보는 찬양은 어떤 의미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성도의 이야기와 생각을 정리한다.

## 5. 결론 :

- 현재 불꽃교회에 찬양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이를 통해, 미래를 위해 어떻게 변화하고 보완해 나갈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익숙함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본질적인 것을 잊고 나를 자랑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의 문제를 진단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가져야할 올바른 예배와 찬양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를 통해 불꽃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는 본질을 회복하게 한다. 교회와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고 하나님만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와 신앙은 회복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제 II 장 찬양의 의미와 목적

### A. 찬양의 의미와 목적

#### 1. 찬양의 의미

찬양(讚揚, Praise)이라는 단어는 교회 음악 행위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사전적인 의미는 한자 ‘讚揚(기릴 찬, 오를 양)’에서 드러나듯이,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냄’의 의미를 가진다.<sup>2</sup> 찬양은 기독교 예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진다.<sup>3</sup>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의 표현이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느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행위를 말한다. 잭 테일러(Jack R. Taylor)는 이를 “음성적, 청각적, 혹은 시각적인 방법으로 한 가지만 또는 동시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sup>4</sup>라 정의한다. 밥 소르기(Bob Sorge)는 기본적으로 “찬양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은 “노래, 외침, 말, 악기 연주, 춤, 기타 다른 외적인 모습으로 표현”된다고 말한다.<sup>5</sup> 그래서 찬양이란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서, 그것은 항상 능동적이며, 단정적이고, 표현되는 것이며, 개방적인 것이다. 찬양이 언급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움직임과 행동, 소리, 그리고 노래가 수반되어 나타난다.<sup>6</sup>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리는 것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 한다.

<sup>2</sup> 하재송, 『교회음악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중앙아트 제이앤에이뮤직, 2017), 33.

<sup>3</sup> 김세광, 『예배와 현대 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41.

<sup>4</sup> 잭 R. 테일러, 『찬양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석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5), 23.

<sup>5</sup> 밥 소르기,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 최혁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5), 20.

<sup>6</sup> <https://cafe.naver.com/8h1234/26222> [2025.3.14. 최종접속]

찬양은 예배 안에 속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찬양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이라 하면 음악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찬양이라고 하면 대부분 음악적인 요소를 생각하지만 찬양은 모든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 아주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찬양이 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찬양의 수단과 방법<sup>7</sup>을 보면 먼저 입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처럼<sup>8</sup>, 노래하듯이<sup>9</sup>, 외치는 것<sup>10</sup>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손을 사용해서, 손을 들고(시63:4, 134:2), 손뼉을 치는(시 47:1) 방법이 있다. 세 번째는 몸을 사용하는 것이다. 일어나서(시 134:1, 대하 5:12), 허리를 굽히고(시 95:6, 대하 29:30), 무릎을 꿇고(시95:6), 춤을 추면서<sup>11</sup>, 기뻐 뛰면서(행 3:8) 찬양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기쁜 입술로(시 63:5), 음성으로(시 98:5), 노래로(시 28:7, 33:3), 즐거운 소리로(시 47:1), 방언을 말하며(행 10:46),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통소, 제금 등 여러 악기로(시 150:3-5), 지혜의 시로(시 478:7), 영으로(고전 14:15), 마음으로(엡 5:19)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즉,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sup>12</sup>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감사를 표현하는 찬양은 예배의 중심에 있다고 말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경에서도 찬양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어 왔다.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있다. 가장 강력한 말씀은 찬양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다.<sup>13</sup>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편의

<sup>7</sup> <https://m.blog.naver.com/ccmpilgrim/10035022119> [2025.3.14. 최종접속]

<sup>8</sup> 시편 34:1, 107:21, 126:2

<sup>9</sup> 시편 27:6, 28:7, 59:16-17, 68:4, 69:30, 98:1-4, 107:22, 144:9

<sup>10</sup> 시편 32:11, 66:1-2, 계 7:10

<sup>11</sup> 삼하 6:14-16, 시 149:3, 150:4

<sup>12</sup> 밥 소르기,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 최혁 역, 49.

<sup>13</sup> 가진수, 『예배 찬양 인도』 (서울: 도서출판 위십리더, 2023), 461.

말씀은 ‘찬양의 책’이라 불리기도 한다. 시편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속성들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하다. 시편 뿐 아니라 찬양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 100:2)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 5:19)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쁨의 행위이다. 시편 100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한다.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표현인데 여러 상황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답하며 함께 찬양할 때 더욱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 드리며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의 응답은 오직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sup>14</sup>임을 기억해야 한다.<sup>15</sup>

## 2. 찬양의 목적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하는가? 찬양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같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이다. 존 칼빈(John Calvin)은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며, 그 믿음의 진정한 증거”라고 말했다.<sup>16</sup> 성도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를

<sup>14</sup>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계 4:8)

<sup>15</sup> 가진수, 『예배 찬양 인도』, 463.

<sup>16</sup> 김대권, 『교회음악 철학』 (서울: 도서출판 중앙아트, 2008), 47.

위한 예배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기 원하신다.<sup>17</sup> 그것을 안다면 찬양 역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홀린 듯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눌러 있던 몸을 이끌고 나와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한다. 누가 받으시는지 정확하게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인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시편 66편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시편 113편 3절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라”,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처럼 시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찬양이라 말할 수 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sup>18</sup> 그 이유를 살펴보면,

### 1)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명령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해 달라고 요청하시지도, 애원하시지도 않으셨다. 왕은

<sup>17</sup> A.W. 토저, 『예배』 유정희 역 (서울: 규장, 2019), 91.

<sup>18</sup> <https://m.blog.naver.com/ccmpilgrim/10035022317> [2025.3.14. 최종접속]

절대 요구하지 않고 명령한다. 시편 150편 1절에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 2)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sup>19</sup>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소요리 문답 제1과 제1문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는 하나님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부르셨음(렘 13:11)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들 모두다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할 목적으로 선택받았다.

## 3)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사야 60장 18절에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고 말씀한다. 성경 여러 곳에는 ‘성문’ 을 지칭하는 구절들이 있다. 여기서 찬양에 관계된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시편 87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쳐보다 시온의 문들을

<sup>19</sup> 지음을 받았음이라(렘 13:11, 벧전 2:9, 시 148:5, 느 9:6)

사랑하시는도다” 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찬양들(문들)을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더 사랑하신다. 우리가 찬양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4)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들과 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의 권능과 모든 준비를 자유롭게 풀어놓으십니다. 찬양은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성이 무너지고, 찬양할 때, 귀신은 물러갑니다. 찬양 속에 힘과 능력이 있음을 알리는 성경 말씀들은 사도행전 16장 25-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역대하 20장 14-22절 “14 여호와와 그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맛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15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6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18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

그릇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0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 마태복음 21장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 출애굽기 15장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으로다 하였더라”

##### 5)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는 ‘누구도 자기 자신 속에는 찬양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찬양하기에 합당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없다’ 고 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결코 피곤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보면, 시편 48편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 6) 찬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이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 호세아 14장 2절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 7)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8장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시편 18편 46절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 8) 하나님은 찬송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3편 21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함이니라” , 신명기 10장 21절 “그는 네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라” , 요한계시록 5장 12-14절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의 이유를 찾는다면 계속해서 찾을 수 있다. 피조물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 B. 성경에 나타난 찬양

구약시대의 찬양을 보면<sup>20</sup>, 구약성경에는 예배의 모습은 제사형태로 묘사되고 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음악의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성경 몇 부분을 통해 악기가 종교의식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지만 음악적인 자료는 찾기 어렵다. 구약시대 찬양과 음악 등에 대한 예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레위인(Levite)이다.<sup>21</sup> 다윗 왕 시대에 레위인들은 3개의 계급으로 나뉘었다. 첫째 계급은 사제직이었고, 둘째 계급은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역할을 했다. 셋째 계급은 성전지기 및 문지기였다. 그 밖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 외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sup>22</sup>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이 홍해를 건너 후감격과 감사의 첫 찬양집회를 가진 것을 살필 수 있다 이 찬양 집회에는 미리암과 여자들이 소고를 치며 리듬에 맞추어 응답했던 모습이 나타난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도 하였던라” (출 15:20-21)

또 민수기 10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중을 불러 모을 때’ (민 10:2-4)나, ‘전쟁할 때’, ‘진을 출발할 때’ (민 10:5-6) 뿐만 아니라 경축일이나 정기적으로 모여 ‘제사를 드릴 때’ (민 10:10) 사용하라고 지시하신다. 그런가 하면 제사와 관련 없는 음악사용의 예도 몇 군데 나타난다. 그 중 하나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sup>20</sup> 문지영, 『예배와 음악』 (서울: 가온음 출판사, 2019), 24-31.

<sup>21</sup> <https://lilaacpoem.tistory.com/11172> [2025.3.13. 최종접속]

<sup>22</sup> <https://lilaacpoem.tistory.com/11172> [2025.3.13. 최종접속]

전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며 내려오던 장면(삼상 10:5-6)에서 살필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여 악령이 떠나게 한 장면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다윗 왕 시대에는 성전건축이 계획되고 성전에서 드릴 예배를 위해 성가대가 조직 되었다. 역대상을 살펴보면 성전음악가는 레위인 중에서 30세 이상의 남자로 선택되었고, 구별된 옷을 입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었으며, 왕의 명령을 좇아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음악 감독인 아삽, 헤만, 여두둔의 지휘 아래 목소리와 악기로 찬양하였으며, 이를 위해 밤낮으로 연습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주전 968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당시의 웅장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음악예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번제를 드릴 때 번제가 끝날 때까지 음악이 연주된 것도 살필 수 있다. 한편 70년의 바벨론 포로생활 후에 이스라엘인들이 스킴바벨의 인도하에 본국으로 귀환한 후 파괴된 성전의 기초를 새로 놓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도 살필 수 있다.

“건축자가 여호와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스 3:10-11)

정리하면, 구약시대에는 성막(Tabernacle) 시대에는 주로 예언할 때나, 치유를 위해서 사용된 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B. C. 959-587) 에는

제사를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전쟁할 때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모압과 전쟁할 때 엘리사가 거문고를 켜며 예언의 능력을 행하였던 것(왕하 3:15)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을 대적할 때 ‘노래하는 자’를 선봉에 세워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대하 20:21-28) 등에서 잘 알 수 있다.

### C. 성전에서 사용된 악기들<sup>23</sup>

구약에서 사용된 악기들은 시편 150편에 잘 설명하고 있다.

#### 1) 수금(Kinnor)

수금은 통소와 함께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악기이다. 창세기 4장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악기는 울림통이 따로 없고 낙타나 양의 힘줄로 줄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 악기는 약 7-10줄로 되어 있었으며 뼈나 상아 같은 도구를 이용해 연주하거나 손가락으로 뜯으며 연주했다. 사울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이 악기를 연주하자 악령이 떠나갔다고 사무엘상 16장은 말한다. 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감사의 찬양제사를 올릴 때에도 이 악기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악기의 가장 중요한 사용 용도는 여호와와의 전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이다. 역대상 25장 3절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 2) 비파(Nebel)

비파는 수금처럼 손가락으로 줄을 뜯으며 소리를 내는 악기로서 울림통이 있고

<sup>23</sup> 나규진, 『교회음악개론』 (서울: 가온음 출판사, 2014), 18-26.

10줄로 되어 있으며 수금과 비슷하지만 수금보다 크고 저음을 냈다. 비파는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용도는 수금과 함께 종교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됐다.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 역대하 25장, 아모스 5장에도 비파가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양각나팔(Shophar)

이 악기는 양의 구부러진 뿔로 만들었다. 이 나팔에는 음정을 바꾸는 변음장치인 구멍이 없어서 자연적인 소리 밖에 내지 못했지만 소리는 매우 우렁찼다. 그래서 다른 악기들과는 합주는 하지 못했다. 이 악기는 신호용으로나 전쟁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축일이나 속죄일 등 중요한 절기 때에 사용했다. 오늘날에도 이 악기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용된다. 출애굽기 16장에서 19장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때 불었고,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사사기 6장에서 기도온이 전쟁에서 사용했다.

### 4) 나팔(Khatsotsrah)

나팔은 직선 트럼펫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아 은으로 만든 것이다. 이 악기는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전예배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5) 나팔(Keren)

‘케런’ 이라는 이 악기는 트럼펫의 일종으로 ‘쇼파르(Shofar)’ 나 ‘카초츠라(Khatsotsra)’ 처럼 나팔로 번역된다. 동물의 뿔로 만들어졌으며, 전쟁 등에 사용되었다. 성전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성가대원으로 활동했던

헤만의 아들들이 그것을 불었다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 6) 제금(Tsitslim)

제금은 금속으로 만든 둥근 접시 모양의 심벌즈 같은 악기이다. 이 악기는 음악을 통솔하는 아삽, 헤만, 여두둔과 같은 지도자가 연주하였다. 주로 음악이 시작할 때나 멈출 때 또는 끝날 때 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악기는 역대하 5장 13절에 솔로몬이 성전봉헌식을 거행할 때나 역대하 29장에 히스기야가 성전정화식을 거행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느헤미야 12장에서도 사용되었다.

### D. 찬양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

찬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합쳐서 약 12개이며, 더 넓은 의미의 찬양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약 50개, 헬라어 약 20개가 있다. 이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단어마다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sup>24</sup>

#### 1. 구약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와 의미

##### 1) 할랄(halal)

할랄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중에서 가장 최고의 표현인 할렐루야이다. ‘할랄’에 여호와를 뜻하는 ‘야’가 합하여 만들어진 말이 찬양에 있어서 극치의 표현이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99번이나 사용되어

<sup>24</sup> 김명환, 『찬양의 성전』 (서울: 새찬양후원회, 2004), 35.

찬양의 뜻으로는 가장 많이 쓰여진 핵심적인 단어이다.<sup>25</sup> 그 뜻은 송축하다, 찬송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이다. 이 단어는 주로 시편에서 찬양하라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다.<sup>26</sup> 할랄이 사용된 말씀으로는<sup>27</sup> 역대상 16장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화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할랄)게 하였으니”,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나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랄)하리이다”, 시편 113편 3절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할랄)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할랄)하나이다”

## 2) 야다(yada)

‘야다’ 는 할랄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면 ‘야드’ 는 손을 의미한다. 그래서 야다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함으로 경배하다’, ‘두 손을 치켜들다’ 라는 뜻을 가지며 신,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 경배, 찬양, 감사 등을 표현할 때 많이 쓰였다. 예배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 단어의 핵심은 ‘고백하다’ 인데 이 고백이 바로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준다. 찬양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이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고백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찬양의 수준은 그 영적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sup>28</sup> 야다가 사용된 말씀으로는<sup>29</sup> 창세기 29장 35절 “...여호와를 찬송(야다)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찬송)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도다”, 역대하 20장 21절 “...거룩한

<sup>25</sup> <https://m.blog.naver.com/ccmpilgrim/10035022293> [2025.3.14. 최종접속]

<sup>26</sup> Ibid., 35.

<sup>27</sup> <https://m.blog.naver.com/ccmpilgrim/10035022293> [2025.3.14. 최종접속]

<sup>28</sup> 김명환, 『찬양의 성전』, 37.

<sup>29</sup> <https://m.blog.naver.com/ccmpilgrim/10035022293> [2025.3.14. 최종접속]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야다)하여 이르기를...” ,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야다)할지로다.”

### 3) 바라크(barak)<sup>30</sup>

구약성경에서 200번 이 말이 사용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 또는 사람의 축복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나타내는 경우는 약 70번 사용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무릎 꿇다, 송축하다, 축복받다, 경의를 표하다’ 는 뜻을 가진다. 바라크가 사용된 말씀으로는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바라크)을 받으실지니이다” , 시편 96편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바라크)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바라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바라크)하라” , 시편 103편 20절, 22절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바라크)하라...여호와를 송축(바라크)하라”<sup>31</sup>

### 4) 테힐라(Tehillah)<sup>32</sup>

테힐라는 ‘할랄’ 에서 파생된 낱말로서 ‘노래하다’ , ‘칭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찬양의 중요성 내지는 방법을 내포한다. 즉 찬양은 노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찬송을 정의하고 있다. ‘찬송가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만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sup>30</sup> Ibid.

<sup>31</sup> <https://m.blog.naver.com/ccmpilgrim/10035022293> [2025.3.14. 최종접속]

<sup>32</sup> <https://cafe.naver.com/8h1234>, [2025.3.14. 최종접속]

찬송하는 것이 아니다. 또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노래하기만 하면 그것은 찬송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찬송가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한다. 첫째, 노래(Canticum)하는 것과, 둘째로 찬양(Laudem)하는 것과, 셋째로 하나님(Deith)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테힐라가 사용된 말씀으로는 신명기 10장 21절 “그는 네 찬송(테힐라)이시오 네 하나님이라...”, 느헤미야 12장 46절 “...하나님께 찬송(테힐라)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여”,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테힐라)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할랄) 우리 하나님을 찬양(자마르)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테힐라)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사야 61장 3절 “...그 슬픔을 대신 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 5) 자마르<sup>33</sup>

이 낱말을 주로 시편에서 사용되었다. ‘자마르’는 ‘악기의 줄을 통기다’, ‘노래하다’, ‘찬양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찬양장 중에 하나인 역대상 16장 9절에 찬양의 의미로서 ‘자마르’가 사용되었고, 35절에는 테힐라’, 36절엔 ‘바락’과 ‘할랄’이 사용되었다. 찬양에 있어서 표현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자마르가 사용된 말씀으로는 사무엘하 22절 50절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자마르)하리이다”, 역대상 16장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자마르)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시편 7편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자마르)하리로다”, 시편 9편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자마르)하리니”, 시편 18절 49절 “...내가

<sup>33</sup> <https://cafe.naver.com/8h1234/26222>, [2025.3.14. 최종접속]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 6) 샤페르(Sabah)<sup>34</sup>

이 단어는 찬양의 감탄적인 형태로 사용됐다. ‘샤페르’는 ‘외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 ‘칭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샤페르가 사용된 말씀으로는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샤페르)할 것이라”, 시편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샤페르)할지어다”, 시편 145편 4절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샤페르)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47편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샤페르)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랄)할지어다”

이외에도 ‘찬미하다’의 ‘가달’, ‘외치다’, ‘기뻐 돌다’의 ‘길’, ‘인정하다’, ‘찬양하다’의 ‘자카르’, ‘공경하다’, ‘영화롭게 하다’의 ‘카페드’, ‘승리의 환성을 지르다’의 ‘루아’, ‘춤추다’, ‘경충경충 날뛰다’의 ‘라까드’ 등 여러 단어들이 찬양의 의미로 쓰여졌다.

## 2. 신약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와 의미<sup>35</sup>

### 1) 아이네스(Ainosis), 아이노스(Ainos) 아이네오(Aineo)

일반적으로 찬양, 찬미, 찬송을 뜻으로 사용된다. 아이네오는 찬양을 뜻하는

<sup>34</sup> Ibid.

<sup>35</sup> Ibid.

히브리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인 ‘할랄’ , ‘야다’ 에 비교할 수 있는 단어이다. 아이네오와 관련된 단어로는 ‘아이네시스’ 와 ‘아이노스’ 가 있다. 모두 찬미, 찬양, 찬송을 뜻한다. ‘아이네시스’ 는 명사형으로서 동사인 ‘아이네스’ 로부터 왔으며, ‘아이네오는 ’ 아이노스 ‘로부터 유래되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1장 16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 누가복음 2장 13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 누가복음 18장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 누가복음 19장 37절 “이미 감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 ,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사도행전 3장 8-9절 “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8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 , 로마서 15장 11절 “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 ,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

## 2. 독사(Doxa), 독사조(Doxazo)

독사는 찬양, 찬미, 명예, 영예, 영광의 뜻을 가진 명사형이며 독사조는 동사형으로 영광스럽게하다, 영광스럽게 여기고, 영광을 돌리다 이다. 독사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독사조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9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태복음 15장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로마서 15장 6절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 3. 에파이노스(Epainos)

이 단어는 찬양(ainos)이란 단어 앞에 “~에게” 라는 접두어 ‘에피’ (epi)가 붙은 말로서 ‘아이노스’의 강조한 형태이다. ‘에파이노스’는 칭찬, 찬양, 찬미, 찬송의 뜻을 가지고 동사형인 ‘에파이네오’는 찬양하다, 칭찬하다로 쓰였다.

에파이노스는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13장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 에베소서 1장 5-6절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 빌립소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 에파이네오 - 로마서 15장 11절 “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 4. 울로게토스(Ulogetos)

사람에 대하여는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이다.

복된(Blessed) 또는 찬양 받으신(Praised)의 뜻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 과 고린도후서 11장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 ,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 위 말씀에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엑소몰로게오(Exomologeio)

‘엑소몰로게오’는 고백하다, 자백하다, 감사하, 시인하등의 뜻을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5절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 누가복음 10장 21절, 로마서 15장 9절

## 6. 홈네오(Hymneo)

노래하다, 찬양라등의 뜻을 가지고 홈네오가 쓰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0절, 마가복음 14장 26절, 사도행전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에 사용됐다.

## 7. 메갈루노(Megaluno)

메가루노는 크게, 위대하게, 길게 만들다. 확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 46-47절과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사용됐다.

## 8. 프쌀로(Pasillo)

프쌀로는 영적인 무아의 상태에서 노래를 하다, 가락을 짓다의 뜻을 가지고 로마서 15장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사용됐다.

찬양은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 칭찬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 경배하다, 두 손을 치켜들다, 감사하다,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경의를 표하다 등의 뜻과 신약성경에서 헬라어 찬양하다, 찬미하다, 찬송하다, 영광을 돌리다, 영화롭게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등의 뜻을 가지는데, 이 의미들은 경배와 감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배는 목상하는 예배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신 행위에 몰두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표현된 사랑이며 행위와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예배이며, 믿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일에 대한 반응이다. 이 같이 찬양과 경배, 그리고 감사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 특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본질적인 목적에는 차이가 없다. 즉, 찬양은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들어내어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와 정신, 영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며 찬양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인 음악으로, 행위로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sup>36</sup>

요한 세바스찬 바흐(독일어: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가 자신의 모든 작품에 “S.D.G” 라는 글자를 항상 적어 놓았다. 이 세 개의 글자는 “Solī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라는 라틴어의 첫 글자들이다. 바흐가 이렇게 기록했듯이, 모든 찬양<sup>37</sup>은 인간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다.<sup>38</sup>

<sup>36</sup> Ibid.

<sup>37</sup> 음악이든 다른 형태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포현하는 모든 방법

<sup>38</sup> <https://www.biblemaster.co.kr/bread.php?y=2024&m=08&d=14>, [2025.3.14. 최종접속]

## 제 III 장 찬양의 기능적 역할의 대한 고찰

### A. 현대 찬양의 의미와 목적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현대적인 스타일의 음악으로 예배를 섬기는 사역을 일반적으로 ‘예배 사역’ 혹은 ‘위십 사역’이라 부른다. 예배 사역은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에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적인 역할까지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다.<sup>39</sup>

현대 찬양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표현하는 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편하고 많이 사용되는 것이 찬양이라 말할 수 있다. 찬양이라하면 음악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현대 찬양은 성도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기쁨, 슬픔, 감사,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금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어리광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갓난 아기가 되는 것이다.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sup>39</sup> 전영훈, 『그 한사람 예배자에게』 (서울: 죠이선교회, 2020), 23.

## B. 현대예배에 찬양과 음악의 중요성

예배의 시작과 함께 음악이 존재했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sup>40</sup> 그런데 예배 안에 음악이 자리잡고 함께 한 것이 좋은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음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과 악기의 사용하는 것과 여러가지 이유로 공격적 저항들이 있어 왔다.<sup>41</sup> 그러나 예배음악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예배 안에서 기본적인 요소로 자리 잡혀 있었다. 현대예배에서 음악을 빼는 것은 불편함만 가져오는 일이 된다.<sup>42</sup>

교회음악은 교회의 음악이다. 교회의 대한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낱말은 ‘카할’ (קהל)로 회중의 모임을 뜻하며, 신약성경의 헬라어 용어는 ‘에클레시아’ (ἐκκλησία)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교회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회중을 의미한다.<sup>43</sup> 교회음악은 교회의 본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음악의 시작은 음악이 아닌 교회로부터이며, 수많은 사역자로 이루어진 음악소리라는 것이다.<sup>44</sup>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음악이 왜 필요한가? 예배 중에 음악이 꼭 필요할지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기쁨, 감사, 슬픔, 어려움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음악은 성도의 감정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보기만해도 알 수 있듯이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요소가 하나 하나가 음악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배의 순서를 보면 교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전주-예배의

<sup>40</sup> 김순환, 『예배학 총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443.

<sup>41</sup> Ibid., 443.

<sup>42</sup> 김세광, 『예배와 현대 문화』, 40.

<sup>43</sup> 하재송, 『교회음악의 이해』, 17.

<sup>44</sup> 김대권, 『교회음악 철학』, 17.

부름-경배와 찬양-교독문-참회의 기도-용서의 말씀-기도-성경봉독-찬양대의 찬양-설교-설교 후 기도-봉헌 및 찬양-봉헌기도-축도-후주'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드러지는 시간이 60분정도인데 이 시간 안에 음악이 차지하는 시간이 최소 20분 이상은 된다. 그렇다면 음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설교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이 음악을 포함하고 있으니 간단히 여길 수 없다. 음악 자체가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예배에서 음악을 사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편 54편 1절에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스바냐 3장 14절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에베소서 5:19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편 22편 23절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여길 수도 있고,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외쳐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고 말한다.

현대예배는 다양한 장르로 예배를 섬긴다.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다양한 장르로 예배할 수 있게 됐다. 단적인 예로 찬양단을 보면 과거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 교단이 있었다. 예배시간에 오르간이 아닌 다른 악기로 예배하는 건 악마의 악기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재는 찬양단마다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체적으로 곡을 쓰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색을 보이고 있다. 예배 때 부르는 찬양도 다양한 편곡을 통해 성도들에게 선보이고 찬송가 편곡을 통해 신선한 버전의 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다.

온라인 You Tube를 통해 이런 컨텐츠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음반CD를 구매하거나 음악만 들을 수 있던 시대에서 더 나아가 직접 볼 수 있는 영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유명한 찬양팀에 연습 영상, 예배 영상, 악기 연주 영상들을 쉽게 찾아보게 되면서 지역교회 찬양팀들의 음악적인 부분에서 성장이 있고, 찬양팀을 섬기려는 성도들이 많아졌다. 특히 기독교 실용음악과를 지원하기도 하며 악기 연주와 목소리 그리고 곡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자유롭게 다양해졌다. 그러나 누군가는 유명한 찬양팀이 올리는 영상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많은 10대, 20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된다. 교회 사역뿐 아니라 외부에서 찬양팀 사역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좋은 음악으로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 좋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 C. 찬양이 주는 영향력

일반적인 예배를 생각해보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음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것이 음악적인 부분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익숙함이란 참 무서운 것인데 예배 시간에 사용하던 음악적 요소인 오르간, 피아노, 드럼, 기타, 오케스트라 등 악기 연주가 없으면 주님을 찬양한다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런 분위기와 상황에 어색하고 또 불안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처럼 예배와 찬양에서 음악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와 예배 안에서 음악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됐다. 또한 그 자리에 많은 성도들은 헌신으로 섬기며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음악적 요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 있지만 현대에는 음악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새들백교회의 예배인도자 릭 무초(Rick Muchow)는 예배에서 음악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음악 자체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언어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sup>45</sup>

그렇다고 음악이 잘못됐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너무도 많다. 그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첫 전도사 사역지에서 연합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때 어떤 찬양팀이 왔었는지도,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고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강사 목사님께서 건반 연주자에게 찬양 곡을 하나 알려주시면 연주를 부탁했다. 그 곡은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곡이었다. 이 찬양을 연주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청년들이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어쿠스틱 기타 연주자에도 똑같은 찬양을 연주하게 하고 찬양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1시간 정도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또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로 준비했다. 다른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강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찬양사역을 하는 나에게도 아직도 선명하게 그 목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화려한 조명과 멋진 악기 연주에 맞춰서 찬양했습니다.

<sup>45</sup> 박철순, 『예배콘티 작성의 원리와 실제』 (파주: 위십빌더스 출판부, 2017), 34.

기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런데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한 순간이라도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기쁜 겁니다. 그런데 뽕뽕하고 사운드와 화려한 조명 때문에 기뻐한 건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피아노 한 대와 기타 한 대로 찬양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가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조명으로 채우지 않아도 드럼과 일렉기타 등 악기와 음향 시스템으로 채우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진심이 전달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착각해요. 악기가 없으면 ‘찬양하기 어렵다’, ‘찬양할 수 없다’ 말해요. ‘음악 전공자가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한다’, 전문적인 미디어 담당자가 없어서 소리가 울리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오늘은 예배가 망했다’ 생각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물론 그렇게 잘 준비되고 좋은 시스템 안에서 드리는 것이 결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인 음악이, 꼭 필요한 것이겠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기타 한 대로 하나님을 경배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마치고 여러분의 교회로 돌아가셨을 때 그 교회를, 그 예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어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악기가 많고 보컬이 많으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아니더라도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찬양은 음악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드러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대의 찬양은 성도들의 삶에 깊이 자리 매김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음악만을 생각한다. 특히 교회에서는 교회음악을

생각한다. 과거 찬양이 준비찬양의 역할을 감당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찬양이라 말할 수 있다. 현대 찬양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기쁘고 감사한 것들을 놓고 찬양하고, 반대로 아픔과 상처들을 찬양으로 이겨나가며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역할 중 하나가 성도의 삶에 문제들을 들어주고 기도하면서 위로하는 역할도 한다. 상담자의 역할이다. 하지만 꼭 사람을 만나야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이나 예배에 참여할 때 인도자나 찬양단 보컬, 악기 연주자, 특송자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위로 받는데 큰 역할을 한다. 물론 목회자는 성도가 돌아올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하지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시대가 왔다. 지금의 찬양은 곡조 있는 고백의 역할도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고 가장 든든한 방패이며 희망이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 교회음악이라 불리고 예배음악이라 불리는 음악적 요소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결코 문제는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그것에만 집중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주님과 의 관계를 멀어지게만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아닌 것들이 더 주인 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만큼 찬양은, 성도의 삶의 아주 큰 영향을 준다. 단순히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러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데 영향을 준다. 현대 찬양은 예배시간에만,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찬양이고 예배이다.

## 제 IV 장 불꽃교회 음악부와 현황

### A. 불꽃교회 음악부와 찬양 사역의 소개

#### 1) 개척기

불꽃교회는 1986년 전용재 원로감독의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됐다. 대치동과 분당구 정자동을 거쳐 지금은 판교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불꽃교회는 찬양과 기도로 부흥한 교회이다. 대치동에서 정자동으로 교회를 이전 건축했을 때 교회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겠지만 불꽃교회는 특히 음악에 자부심이 있었다. 찬양의 힘이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였기 때문에 불꽃교회의 찬양이 지금까지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된다.

#### 2) 판교성전(현재)

현재 불꽃교회에는 2011년 성남시 판교동으로 교회를 이전 건축했다. 정자동에 위치했을 때는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을 정도로 음악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다. 판교로 이전한 후에는 전자 오르간으로 교체하고 그랜드 피아노와 챔버(오케스트라)팀이 예배를 섬기고 있으며, 찬양팀을 위한 드럼,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색소폰, 전자 건반, 신디사이저로 예배를 섬기고 있다.

불꽃교회에는 문화부에 소속된 음악부가 있다. 음악부는 교회 안에서 드러진 모든 예배에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다. 문화부 담당 목사와 문화부장,

문화부차장과 2개의 찬양대, 2개의 찬양팀 그리고 혼성 중창단 1개와 챔버팀 1개가 예배를 섬기고 있다. 문화부장과 문화부차장을 포함해 264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먼저 찬양대를 간단히 소개하면, 주일 오전 8시 1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시온 찬양대가 있다. 주일 오전 10시 2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헤세드 찬양대가 있다. 찬양대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하며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다.



블꽃교회 대성전 찬양대의 위치는 첨부 사진처럼 중성전, 대성전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리하고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찬양대와 회중>

여기에는 담임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다. 찬양대의 찬양은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다.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찬양대와 늘 함께하는 챔버 팀이 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으로 구성된 챔버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예배를 섬기며 단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교육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아름다운 연주로 경배 드리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 챔버도 예배실에서 십자가를 보고 찬양대보다 앞 쪽에 위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기대하며 찬양한다.



<장로 취임예배 특송을 부르는 HFC 중창단>

HFC 중창단은 교회 안에 있는 특별행사, 외부 초청 행사 때와 교회 창립기념일과 성금요일 특별예배 때 모여 찬양한다. 중창단의 시작은

불꽃남성합창단이였다.

과거의 사진을 보면 교회에 많은 행사들에 특별 찬양을 맡아서 섬겼던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은 남성에서 혼성을 변경되었고 성금요일 특별예배와 취임예배, 교회창립기념일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 단원들 모두가 다른 찬양단과 찬양팀에 속해 있다. 정기적인 모임은 있지만 특별예배에 메인으로 하는 중창단이다.

불꽃교회에는 장년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찬양팀이 있다. 하나는 하늘소리 찬양단이며, 또 다른 하나는 듀나미스 찬양팀이다. 하늘소리 찬양팀은 금요일 저녁



<회중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하늘소리 찬양팀>

9시에 드리는 금요 부흥회를 담당하고 있고, 듀나미스 찬양팀은 주일 3부 12시 예배를 담당하고 있다. 두 팀 모두 프로세션과 아마추어가 함께 예배하며 청년에서 장로님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한다.

찬양팀은 찬양대와는 다르게 강대상 위에서 회중을 바라보고 찬양한다. 회중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은 찬양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찬양대는 예배의 중간에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높여 영광 돌리고, 찬양팀은 회중들이 하나님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설 때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찬양팀이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에서 힘겹게 싸우다 이곳에 나온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물론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면 가능하지만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말씀을 마음에 담을 준비를 돕는 역할이다. 이처럼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sup>46</sup>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다.<sup>47</sup>

과거 찬양대는 교단 내에서 진행하는 찬양대회에서 수상을 하며 찬양이 뜨겁고 열정있는 교회로 유명했다. 지금은 찬양대회를 나가거나 하지 않고 있지만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는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담임목사님의 말씀 다음으로 찬양 때문에 교회를 선택했다는 말을 들었다. 음악부를 담당하고 처음 등록하신 성도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본인이 왜 불꽃교회에 등록했는지 아세요? ‘저는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선택하게 됐어요.’, ‘진심을 담은 찬양대의 찬양이 저한테 그대로 전달되어 저는 감동받았어요’ 하는 고백이었다. 자신도 찬양대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다는 짧은 간증의 고백 후 현재는 찬양대에서 총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찬양대를 섬긴 기간이 짧으면 몇 개월 된 성도도 있고,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며 섬기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 찬양대원들에게 그 자리는 왜 중요한걸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으로

<sup>46</sup> 백성훈, 『팀 사역의 원리: 예배팀 운영의 실제』 (서울: 기독교문화선교회, 2018), 33.

<sup>47</sup> Ibid., 37.

영광돌리는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내려 놓을 수 없는 걸까?

찬양대는 성경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지만 본래 이러한 명칭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노래하는 자들’이란 말로 명명되었던 이 그룹은 장막에 안치된 언약궤 앞에서 혹은 성전시대 때에 행해지는 예배 중에 ‘노래와 악기 연주’로 섬겼던 무리들이었다. 이들이 행했던 노래는 한결같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대상 23:5)처럼 하나님 자랑, 칭송, 경배, 감사, 송축, 찬양, 고백, 선포와 탄원적인 간구의 노래(시편 5편, 56편, 69편)와 기도 등의 내용이기에 종교적인 음악 연주의 봉헌에 머문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헌신의 예배 행위이다. 이에 근거해서 볼 수 있는 그들의 정체성과 본질은 희생 제사와 같은 봉헌인 제사장적 기능에서만 아니라 찬양의 심화된 의미들과도 직결된다. 예배 행위의 속성에 적용되는 과정에 예배의 대상과 예배하는 자(회중)에 따른 섬김의 수직 및 수평이란 양방향 사역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준한 그 그룹의 명칭이 찬양대다.<sup>48</sup>

성경에서도 찬양대의 역할은 분명하다. 구약시대 찬양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구성하여 수준 높은 성전음악으로 이끌어 올린 공헌자가 있다. 그 주인공은 다윗이다. 그는 공식적인 예배에 찬양대 제도를 도입했다. 레위인들을 세워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로 임명한 것이 대해 역대상 6장 31-48에 언급하고 있다.<sup>49</sup> 레위 자손의 구분과 임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찬양대는 선택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수많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전문성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곤 한다. 물론 전문성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sup>48</sup> 김대권, 『예배와 음악』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4), 186.

<sup>49</sup> <https://blog.naver.com/idream2030/140209613363>) [2025.3.12. 최종접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회중들도 한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몇몇 교회에서는 찬양대의 기능을 너무 쉽게 여겨 예배에서 그 기능을 빼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임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실력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또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일 것이다. 그들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예배에 찬양대가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길 하나가 막힌 것과 같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불꽃교회에는 2020년 음악부 담당 목사로 부임하게 됐다. 부임 후 성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특별히 부서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 그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것 뿐이었다. 그 시기에는 교회 안에서 통성기도와 찬양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리두기와 설교자들도 마스크를 써야만 했다. 조금씩 완화되는 상황에서 예배도 하나씩 본래의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거리두기로 바로 옆에 앉지도 못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원제한으로 모여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설교자들도 불편하겠지만 성도들과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교회는 활기를 찾기 위해 많은 행사들을 만들었다. 특별히 불꽃교회는 성도들의 참여로 성금요일 특별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라는 뮤지컬을 자체 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기획부터 연습까지 참여하는 성도들은 기쁘이고 감사였다.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고백뿐이었다. 온 성도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배우로, 데코팀으로, 준비 스태프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뤄냈다. 그 결과는 너무 큰 감동이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분명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했다. 아래에 성금요일 뮤지컬 당시 사진을 준비했다.



<뮤지컬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사진 1>



<뮤지컬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사진 2>

이 뿐만 아니라 ‘빛의 축제’로 판교지역에 있는 차세대 친구들이 할로윈 파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 지역을 더욱 밝게 빛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차세대 목자(교사)와 청장년, 남선교회, 여선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축제를 준비했다. ‘빛의 축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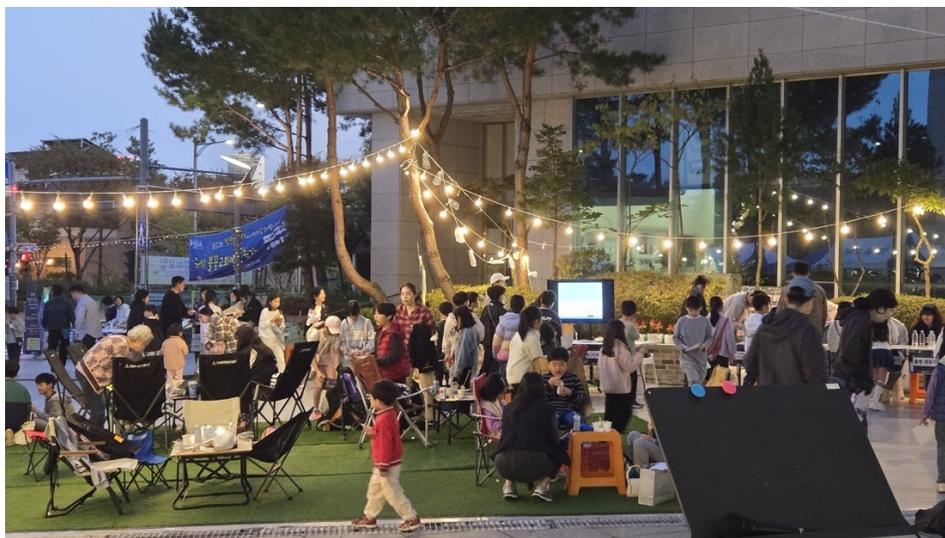
통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리는 일에 힘쓰고 이 또한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빛의 축제 사진 1>



<빛의 축제 사진 2>



<빛의 축제 사진 3>

마지막으로 차세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매년 성탄절 칸타타르 음악부에서 준비한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는 온 세대가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 기뻐하며 찬양하기로 마음을 모아서 “온 세대 연합예배”로 주님을 경배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sup>50</sup>이 음악부 모든 임원들이 결하게 됐다. 준비하는 인원,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다.

<sup>50</sup> 이충섭, 『교회학교 해봤어!』 (서울: 누가출판사, 2021), 7.



<2024 년 성탄절 연합예배 1>



<2024 년 성탄절 연합예배 2>



<2024 년 성탄절 연합예배 3>

불꽃교회에 음악부 소속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사역을 함께 한 이들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온 성도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불꽃교회 음악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이다. 하나님역시 예배의 공동체 성을 강조하신다. 그래서 예배를 말할 때, ‘나’ 보다 ‘우리’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옳다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 주시는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섬김이다.<sup>51</sup>

<sup>52</sup>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공동체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예배에서의 찬양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노래가 되어야 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공동체임을

<sup>51</sup> 최현구, 『예배, 비밀을 찾다』 (안산: 토브북스, 2025), 27.

<sup>52</sup> 가진수, 『모던위십』 (부천: 위십리더, 2022), 183.

기억해야 한다.

### B. 불꽃교회 찬양 사역의 현주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 없이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실수를 범하며 살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 벌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만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 그분을 두려워하여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지었던 죄는 금방 잊고 또 실수하기 마련이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할 것이다. 입으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한다 하지만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신 말씀처럼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다니지만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산 소망을 얻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배의 목적 그 자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주체이며 목적이며 무한한 중심이라는 사실”<sup>53</sup>이다. 이처럼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면, 예배를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찬양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불만을 갖는 것과 같은

<sup>53</sup> Marva J. Dawn, *A Royal Waste of Time: The Splendor of Worshiping God and Being Church for the World*(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8.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순순한 뜻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삶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역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대학시절부터 찬양팀에 소속해서 음향 엔지니어와 싱어, 찬양인도자로 15년 이상을 사역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그저 모든 것이 멋있어 보였다. 내가 하는 것들이, 선배들이 하는 것들이 그저 멋있어 보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찬양팀의 존재 이유였다. 이 팀이 왜 모였고, 왜 찬양으로 예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했다. 20살이라는 나이에 무엇이 멋있어 보이지 않았겠는가? 찬양의 이유도 알고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배 인도 자리에 설 때면 가장 기본적인 기준들이 사라지곤 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고 그곳에 하나님도 임재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수련회나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크게 들리고, 나의 행동 하나가 예배자들에게 영감이 간다는 것에 우쭐했다. 그런 내 모습이 어느 날 눈이 확 들어오게 됐다. 찬양인도를 하면서 마음에서는 화가나고 속상함이 커졌다. 그날은 정말 천국 문을 두드렸던 날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인도를 해야 하는 내가, 성경에 근거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앞장서야 했던 나는 온데 간데 없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평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했다. 찬양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with God)’, ‘하나님의(fo God)’ 주권에 의해

‘하나님께(unto God)’ 드리는 것이다.<sup>54</sup>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시작되고 그 부르심은 인간의 응답을 이끈다.<sup>55</sup> 절대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 드러지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행하심에 대해 인간의 응답이 이루어져 일방통행인 독백이 아니라 대화로써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속에 이루어지는 쌍방의 의사소통을 낳는 과정이다.<sup>56</sup>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도의 신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회를 출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교회를 가는 것이 문제가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모임인원 제한과 종교시설과 운동시설처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곳에는 더욱 강하게 적용됐다.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불시에 방문하기도 하면서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코로나 19 거리두기 규제 종교시설 안내문>

<sup>54</sup> Franklin M. Segler, *Understanding, Preparing for, and Practicing Christian Worship*, 2<sup>nd</sup> ed.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6), 6.

<sup>55</sup> 김대권, 『예배와 음악』, 26.

<sup>56</sup> N. Lee orr, *The Church Music Handbook for Parstors and Musicia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47.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양하는 찬양대 모습>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양하는 찬양팀 모습>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하는 모습>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신앙인들의 마음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 바이러스는 내면,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지속되면서 TV, 컴퓨터,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은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만 귀로 듣는 것이었다. 익숙해지니 예배실황은 켜놓고 화장하고 머리 손질하고 약속 나갈 준비나 식사를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자연스러웠다. 차세대 교육부를 잠깐 맡았던 적이 있다.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청년들이 웃지는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는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다. 모세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sup>57</sup>” 고 말한다. 이 말이 과연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말이냐는 것이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시며 항상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믿음만 변하고 내 신앙만 흔들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꽃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당시 전세계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적이 있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코로나로 약 1,000개에 가까운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는 말이었다. 규모가 큰 교회들도 타격은 입었겠지만 중소형 규모의 교회들은 정말 바닥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다.

코로나를 거치며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 수준이 코로나 이전보다 약화됐다고 느꼈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신앙의 약화로 교회를 떠는 성도들이 많아 졌다.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보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단했던 신앙이 느슨해지고 말았다.<sup>58</sup> 약해진 신앙의 자리를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고 그곳을

<sup>57</sup> 신명기 6:5

<sup>58</sup>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9293> [2025.3.12. 최종 접속]

공략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들은 그 자리를 비워두기 시작한 것이다. 예배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돌리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많아졌다.

성도들의 신앙은 예민해졌다. 영적으로 예민한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마귀도 그 틈을 노려 비집고 들어온다. 그때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태이다. 코로나로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적으로 문제는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다른 모양과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받으신다.<sup>59</sup>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교회의 예배도 조금은 더 자유로워졌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많은 성도들이 내가 매주 헌신했던 그 자리를 너무 그리워했다. 그 마음은 정말 좋은 의미이다. 그러나 반대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찬양과 영광을 자신이 취하면서 나를 알리는데 힘을 더하기 시작했다. 자꾸 욕심을 부르게 된다. 교회에서는 코로나 시기 이후에 뮤지컬을 제작했다. 그때 오디션으로 배우를 뽑았다. 현역에서 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으로 배우들을 뽑았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믿지 않고 비리가 있다고 불만을 쏟아 놓는 성도가 있었다.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누구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일 것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하나님으로부터

<sup>59</sup> 김병삼 외, 『올라인 교회』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2021), 35.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주의 일을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 결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빈털터리가 된다. 내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말한다. 성경은 신앙을 관계로 설명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각 사람은 한 아버지 아래서 가족이 되고 형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 이것은 모두 관계를 전체하는 설명이다.<sup>60</sup>

연합된 관계, 하나된 교회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신앙인으로서 서로 무시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준비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에 들 수도 없다. 오디션에 떨어져 뒤에서 욱하고 프로젝트가 망했으면 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 음악적인 실력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모습을 보이며 질투에 휩싸여 분노하는 모습까지 보았다.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재능을 과시하지만 그것은 자기 중심에 빠진 공연에 불과하다.<sup>61</sup>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 찬양인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찬송가 많이해요 목사님.”, “요즘 찬양 몰라요 하지마세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 말은 듣지 말고 목사님이 하고 싶은 곡을 하세요! 근데 찬송가는 많이 하지 말아요. 너무

<sup>60</sup> 김재권, 『회복하는 교회』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80.

<sup>61</sup> 문희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서울: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03), 7.

올드해요.” 충격적인 것은 이 이야기들을 아직도 듣고 있다는 것이다. 찬양인도의 가장 첫번째 기준으로 잡는 것은 그날 선포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 설교자의 본문에 맞춰서 찬양을 준비하다. 물론 100% 맞아 떨어지기는 쉽지 않지만 말씀제목과 본문을 받으면 먼저 성경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한다. 한 번은 예배가 시작 5분전 쯤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너무 느려. 이 곡은 빨리 해야되”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내가 이런 말 했다고 기분 나빠 하지마요 목사님”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셨다. 정말 마음이 불편했다. 불꽃교회 찬양인도자로 오기 전에 사역하시던 분들을 성도님이 수시로 불러서 이런 저런 점을 지적하시면서 사역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고 들었다. 다행인 건 내가 목사라서 그런데 나를 따로 부르지는 않으신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또 이 이야기를 적고있는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는 너무도 아프고 슬프다. 백날 천날 하나님 찬양해요 라고 고백하는 말들이 진심인가? 찬양이 그날의 내 기분에 맞춰서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예배가 드려야 하는 것이 마음 아프다. 어찌보면 이러한 것이 우상숭배라 생각한다. 시스템이 없어도, 악기가 없어도, 보컬이 없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짧은 생각으로 뱉는 말들이 사역자들과 다른 평신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된다.

군 전역 후 청소년부 수련회 찬양인도를 부탁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도 찬양팀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악기팀만 꾸리고 보컬팀은 없이 2박 3일 집회를 인도하러 군산까지 갔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시간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었다. 예배하는 학생들이나 스태프들 그리고 찬양팀 모두가 화려함에 가려져 바라보지 못했던 진짜 주님을 볼 수 있게 됐다.

누구나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욕하고 비난하고 의심하는 실수는 없어야 한다. 나도 주인공 하고 싶은데, 나도 지휘하면서

특송 준비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노래 부를 수 있는데, 하는 이런 마음은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보고,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존재들이다.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서로 돕고 나눠주는 삶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준비된 모든 것이 나의 자랑거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 버림 받는 신앙이 된다. 불꽃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뜨거운 찬양으로 부흥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제자리걸음 하는 신앙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찬양한다는 것이 꼭 음악적으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되어 그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이라면 그 또한 찬양이라 말할 수 있다. 남을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동이다.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어버리고 내 만족을 위한 행동하게 되는 때도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불꽃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막는 것이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역자와 직분자, 그 부서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듣고 기도하며 성경대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 제 V 장 성도가 바라본 불꽃교회 찬양

### A. 사역자와 성도가 바라본 불꽃교회 예배와 찬양(질문)

본 연구를 위해 질문지를 준비하여 담임목사님과 목회자, 문화부장, 음악부원으로 헌신하시는 분과 찬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직분별로, 부서별로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총 7명이 동일한 질문 14가지를 불꽃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통해 경험하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답변 받았다.

#### 질문 1. 성함과 직분을 알려주세요.

공 0 0 목 사: 공 0 0, 담임목사

박 0 0 전도사: 박 0 0, 전도사

방 0 0 전도사: 방 0 0, 전도사

조 0 0 장 로: 조 0 0, 장로

김 0 0 권 사: 김 0 0, 권사

진 0 0 집 사: 진 0 0, 집사

문 0 0 성 도: 문 0 0, 성도

**질문 2. 현재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사역하고 계신가요?(봉사하시는 모든 부서)**

공 0 0 목 사: 담임목사로서 교회 전반적인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 0 0 전도사: 작년까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목회지원 및 기획행정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방 0 0 전도사: 아산중부감리교회에서 담임교역자로 사역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부터 코로나가 끝날 무렵까지 불꽃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했었습니다.

조 0 0 장 로: 문화부장, 듀나미스찬양단, 하늘소리찬양단, HFC중창단, 속회인도자, 파더와이즈양육

김 0 0 권 사: 저는 현재 금요부흥회 찬양팀인 하늘소리 찬양팀, 주일 12시 3부예배 듀나미스 찬양팀, 선교부 차장, 아프리카선교팀장, 남선교회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진 0 0 집 사: 유/초등부 찬양단 반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 0 0 성 도: 주일에는 유/초등부 목자(교사)와 금요 부흥회 찬양을 섬기는 하늘소리 찬양팀에서 메인 건반을 담당하고 있고, 청년부에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질문 3. 내가 생각하는 찬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 0 0 목 사: 찬양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최고의 행위이며 꼭조 있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박 0 0 전도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돌리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 0 0 전도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음울과 말로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 0 0 장 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모든 표현들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0 0 권 사: 신앙의 고백이며 마음의 위로라 생각한다.

진 0 0 집 사: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문 0 0 성 도: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 질문 4. 찬양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 0 0 목 사: 노래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박 0 0 전도사: 보편적인 방법의 회중찬양, 혼자서 읊조리는 찬양 등 딱 어떤 한 가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 0 0 전도사: 1) 노래로 찬양하는 것 - 이때 노래에는 모든 악기를 사용할 수 있다.

2)기도로 찬양하는 것 -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며 감사함.

3) 삶으로 찬양하는 것 - 우리의 말과 행동, 숨쉬는 모든 것이 찬양이어야 한다.

조 0 0 장 로: 노래, 춤이 대표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0 0 권 사: 회중찬양, 율동찬양, 합창, 중창이라 생각된다.

진 0 0 집 사: 악기, 워십, 노래,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 0 0 성 도: 찬양 부르기와 찬양곡을 악기 연주하는 방법이 있고, 삶에서 말씀 실천하는 것이 찬양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질문 5. 찬양의 기능적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 0 0 목 사: 예배자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게 한다.

박 0 0 전도사: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방 0 0 전도사: 찬양은 찬양 그 자체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기능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찬양이 예배 중 하나의 기능으로 말씀을 준비하거나 뒷받침하는 도구로 인식할 수 없다. 찬양은 찬양 그대로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순간이며, 그래서 삶으로의 찬양이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나의 삶속에서 드러내며 단순히 예배시간에 드러지는 하나의 기능이 될 수 없다.

조 0 0 장 로: 하나님과 예배자가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순서로 기능을 합니다.

김 0 0 권 사: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진 0 0 집 사: 회중이 하나의 소리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드림으로 예배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함.

문 0 0 성 도: 삶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된다.

#### 질문 6. 찬양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공 0 0 목 사: 하나님과 나

박 0 0 전도사: 하나님

방 0 0 전도사: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다. 찬양의 대상은 누구나,  
무엇이나 될 수 있다. 돈을 찬양할 수 있고, 인간 중 대상을 정하여  
찬양할 수 있다. 또는 예배시간에 찬양을 할지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찬양은 오롯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러져야 하고 불러져야 하며 고백되어져야 한다.

조 0 0 장 로: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찬양을 하면서  
예배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김 0 0 권 사: 하나님 오직 한분

진 0 0 집 사: 하나님

문 0 0 성 도: 하나님

질문 7. 교회 안에 음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공 0 0 목 사: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박 0 0 전도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감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음악적 요소에 반응하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 합니다.

방 0 0 전도사: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을 직접 바라보며 은혜를 느끼기도 하지만, 찬송가에 수록 된 찬송의 가사로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음악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소위 ‘시끄러운’ 음악에 대하여 교회에서 반대하기도 하지만, 모든 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로 선물해 주신 것이다.

조 0 0 장 로: 음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므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방법이 되며, 또 목사님을 말씀과 함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 0 0 권 사: 필요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와 예배 순서마다 부드럽게 이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예배자의 감정과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진 0 0 집 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문 0 0 성 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찬양드리는 것 또한

신앙인들에게는 분명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8. 교회음악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 0 0 목 사: 예배의 완성도를 높이는 필수 요소라 생각된다.

박 0 0 전도사: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도록 관심을 모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 0 0 전도사: 음악에서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음악들이 있다. 가령 기도할 때 빠른 비트와 일렉트릭 사운드로 가득한 찬양반주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예배의 곳곳에서 음악은 사용된다. 영상으로 광고할 때나, 말씀 이후에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의 시작 전과 마치는 성전의 출입에도 음악은 사용된다. 이처럼 교회음악의 역할은 성도가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비하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며, 마침을 알리기도 한다.

조 0 0 장 로: 예배를 위한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성도님들간의 교제나 선교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0 0 권 사: 우리 입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역으로 그 가사를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다시한번 살펴보는 것.

진 0 0 집 사: 찬양은 그 자체가 기도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이다. 교회음악은 예배의 중심에 서서 예배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문 0 0 성 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주며, 서로를

위해 축복해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준다 생각하고, 성도들과 함께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중요한 역할이다.

**질문 9. 음악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 0 0 목 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힘이라 생각한다.

박 0 0 전도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교회 활동과 서로 교통하는 것에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 0 0 전도사: 성도는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다. 그 모든 것은 음악을 이용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난다.

조 0 0 장 로: 심리적, 감정적으로 음악을 통해 더욱 감사와 평안,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한, 예배 시간이 더욱 즐겁게 되어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김 0 0 권 사: 말씀구절 기억과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교회음악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 0 0 집 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음악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치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술이라 생각한다.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서양 음악의 중심은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만큼 교회와 음악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도들은 교회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물론이거니와

삶의 한 가운데 찬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 00 성 도: 강박해진 세상에서 성도들의 마음에 환기를 주고, 그 후 더욱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질문 10. 불꽃교회 찬양의 특징은 무엇이며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 00 목 사: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한다  
생각합니다. 보완점은 눈치 안보고 맘껏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와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으로 무장하여 찬양하길 바랍니다.

박 00 전도사: 불꽃교회 찬양의 특징은 새로운 찬양도 많이 하고, 장년들에게 익숙한 찬양도 많이 해서 좋습니다. 또한 찬양팀이 보완해야 할  
점은

인도자가 추구하는 분위기를 팀원들이 잘 파악해서 잘 따라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방 00 전도사: 찬양에는 악보와 코드가 있다. 예를 들어 “새 힘 얻으리” 라는 찬양을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 아는 전주(코드진행으로 인한 1절 가사의 멜로디)가 있지만 꼭 그 전주를 해야 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연습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다른 팀들이 했던 그대로의 멜로디와 코드 진행의 연주가 대부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에서 바쁘지만 그 찬양 콘티를 깊이 묵상하고 자신만의 연주와 노래를 연습해 오고 리더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찬양의

곡을 완성해야 한다.

조 0 0 장 로: 전형적인 교회의 찬양팀이라고 생각하며, 특징이라면 찬양팀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자 외에는 보컬과 일부 세션이 일반 성도들 위주여서 역량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0 0 권 사: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팀. 인도자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다이내믹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 0 0 집 사: 장년 예배의 경우 예배자의 연령대를 고려한 찬양이 보강되었으면 좋겠다.

문 0 0 성 도: 불꽃교회 찬양의 특징은 성도님들의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자님의 마음이 강건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질문 11. 불꽃교회 찬양이 성경대로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감정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공 0 0 목 사: 성경대로 잘 사용되고 있다 생각 된다.

박 0 0 전도사: 불꽃교회 찬양이 설교 말씀과 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좋습니다.

방 0 0 전도사: 내가 불꽃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5:5의 비율이다. 어떤 성도는 분명 찬양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어떤 성도는 분명히 감정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삶에서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일지라도 그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조 0 0 장 로: 찬양이 설교자이 말씀과 잘 연계되는 것이 중요한데, 불꽃교회는 이 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찬양 후 뜨거운 기도로 이어지는 점도 좋아서 전체적으로 예배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또한 찬송가와 CCM 조화도 좋다고 생각함

김 0 0 권 사: 성경대로 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찬양인도자가 콘티를 짤 때 목상을 통해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흐름을 유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찬양단 외부의 분들이 찬양 분위기, 곡의 구성 등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이 찬양인도자의 의욕을 다소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 0 0 집 사: 성경대로 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 0 0 성 도: 구약시대에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전쟁터 맨 앞에서 힘을 불어넣어줄 정도로 찬양단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꽃교회 찬양이 그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꽃교회 찬양이 사람의 감정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간혹 연습을 하다가 마음이 상한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찬양하여 그것이 찬양에 그대로 나타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단 안에서도 단원들이 하나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많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12. 불꽃교회 예배가 기술적인 면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신가요?(음악적인 부분, 멀티미디어 등)**

공 0 0 목 사: 찬양 율동 팀도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박 0 0 전도사: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 안에서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조명연출의 변화, 새로운 찬양을 하는 것에 대한 성도들의 긍정적 호응 등)

방 0 0 전도사: 많이 듣고 많이 연주해보고 많이 목상해보면 자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조 0 0 장 로: 보컬과 악기 모니터링 음향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은 일부 부족하고, 예배당 음향은 여전히 개선 필요합니다.

김 0 0 권 사: 현장에서 찬양할 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모니터링 할 때면 조화로운 목소리보다는 각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믹싱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예배당 안에서의 소리를 유튜브 음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음향이 송출되지 않는 일도 가끔 발생하는 것 같구요. 라이브 영상에서만 예배 시작부터 기도회까지 풀영상으로 볼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설교영상만 남게되는데, 찬양영상도 별도 클립으로 제공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수준이 높지 않아 그렇게 하실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많이 듣게 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 0 0 집 사: 토크백 사용으로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면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토크백이 어렵다면 충분한 연습으로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 0 0 성 도: 음악적인 부분으로는 비어있는 악기팀 자리(건반, 일렉기타 등)가 채워져서 풍성히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부분은 자막 이탈자 및 자막 싱크 문제, 성도들이 찬양단보다 하나님과 찬양 곡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 자막을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자연 풍경 영상에 자막은 위쪽에 배치해서 시선이 위로 가도록 하는 것처럼요)

**질문 13. 사역자 또는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회중(성도)들을 더 예배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공 0 0 목 사: 찬양집회의 확대와 찬양의 시간을 늘리는 것.

박 0 0 전도사: 성도 개인의 신앙을 경건하게 지킬 수 있는 기도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 0 0 전도사: 찬양팀 개개인의 거룩함, 그리고 성도간의 화목함이 가장 중요하다. 앞에서 있는 성도가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분명 그 자리에서 온전히 찬양을 드릴 수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 0 0 장 로: 예배를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보컬 중심의 찬양단 또는 청년들과 함께 하는 찬양집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전이 너무 빈자리가 많다보니 뜨거운 찬양의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간적인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0 0 권 사: 인터넷에서 찬양예배를 보면 첫 곡과 설교전 마지막 찬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어서서 찬양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는 것과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단의 찬양을 감상하는 예배가 아닌,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 0 0 집 사: 새로운 찬양에 대한 괴리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도들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한 곡은 지속적으로 콘티에 포함시켜 점점 어려워지는 리듬과 화성에 성도들이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문 0 0 성 도: 찬양팀이 할 수 있는 역할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성도들이 계시다면,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자 할 것 같습니다. 찬양단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미 예배를 먼저 드리고 있는 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예배 자리에 없는 분들도 예배 드리러 오실 것 같습니다.

질문 14. 일상생활에서 은혜 받은 찬양곡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공 0 0 목 사: 손경님 목사님 은혜입니다.

박 0 0 전도사: 알파와 오메가(어노인팅 2024),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가사의 감성이 색다르고 좋습니다.

방 0 0 전도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이유는 찬양의 가사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조 0 0 장 로: 은혜, 참만 이런 찬양들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만한 은혜를 경험 할 수 있어서 언제나 좋습니다.

김 0 0 권 사: 어노인팅 전은주 목사님의 내가 예수를 못박았습니다 곡을 들었을 때, 중간 멘트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지 않았어 라는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라는 말을 듣고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용서받을 길 없는 그 죄인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 0 0 집 사: 손경민 목사님 찬양 쉽고 은혜로워서 좋아합니다. 찬송가의 새로운 편곡 버전도 좋아합니다.

문 0 0 성 도: 예수전도단(임우진 간사)-처음과 나중, Bethel Music-All Hail King Jesus, 예수전도단 - 주는 존귀하신 분  
많은 주제에 대한 찬양이 있지만,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곡이라 좋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모두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무언가 발전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겉으로 보기보다 변화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음을 알게 된 인터뷰였다. 인터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들이지만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 모두 교회 안팎으로 예배와 찬양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다. 소수의 의견이라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교회 내에 있는 문화부(음악부) 회의, 예배부 회의, 기획위원회를 통해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환경과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교회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지금의 상황에 익숙해져 만족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 교회 안에 재정적인 문제, 인원의 수급의 문제 이슈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지 못할 때도 있다. 주일을 보내고 다시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전쟁으로 몸과 마음이 다 지쳤을 성도들에게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나를 품어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성도의 신앙에도 유익함이 있고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하게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다. 교회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손으로 만진 바 된다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로 단결될 것이다.<sup>62</sup>

## B. 찬양사역자로서 바라본 불꽃교회

불꽃교회는 찬양사역자로 헌신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다. 좋은 음향과 조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불꽃교회보다 더 규모가 큰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장비도 그렇고 예배 공간, 주차 공간 모두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적인

<sup>62</sup> 테리 로, 『찬양과 경배의 능력』 전가화 역 (서울: 믿음의집, 1988), 186.

부분은 정말 부러울 것 없을 만큼 좋다. 미디어팀에 기술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전문적인 음향 엔지니어 분이 계셨지만 생각보다 교회와는 맞지 않았다. 자기의 고집대로 사역하다 보니 찬양대 지휘자님, 오르간 반주자들과 부딪힘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조정해서 지금은 미디어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섬겨주시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히려 서로 마음 편히 준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

음악부원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하면서 진실하지 못하고 남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다. ‘찬양할 때는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해요!’ 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 활동은 많이 하지만 예배는 거의 드리지 않는다. 사역을 중시하고, 예배는 중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실용적이다.<sup>63</sup> 우리 안에 마르다는 너무 많고 마리아는 너무 적다. 일하는 데 깊이 심취한 나머지 자신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는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조직적으로 바빠 움직이고 있을 뿐, 정작 예배는 소홀히 하고 있다. 직원을 관리하고, 홍보하고,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향하 나아가고, 숫자에 예민하며, 전통주의적이고, 유행을 따르기까지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sup>64</sup>

교회에 오면 새로운 가면을 쓰고 새로운 옷을 입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리고 나는 아닌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이미 무너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다. 찬양팀과 찬양대를 섬기면서 연습은 참여하지 않고 본 예배 때만 와서 공연하듯 노래하는 모습, 곡이 정해지면 잘난 체

<sup>63</sup> 존 맥아더, 『예배』 유정화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2022), 69.

<sup>64</sup> Ibid., 70.

하듯이 말하고 준비하지 않아서 예배 때 실수하는 모습 등 교만하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 앞에 서는 자들로서 쉬운 마음으로 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비난하면 나도 그대로 사람들에게 비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자신을 섬기고 나를 드러내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말씀과 찬양으로 극복하기를 바란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의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의 진실된 목표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물론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 생각한다. 나의 모습은 100%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루 하루를 말씀 붙잡고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한다면 성령충만한 삶이 되어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 제 VI 장 결 론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마음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회자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한다.

불꽃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성도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핑계로 예배에 소홀히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믿음은 아주 잠깐 사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휘감아버린다.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난다. 어느 것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또 문제가 생겨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 주님을 배신하게 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찬양이다.

찬양이라고 하면 대부분 음악적인 요소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찬양에서 음악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 예배에서 찬양은, 음악은 빼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안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모든 회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찬양하면 음악을 떠올려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부

안에 음악부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음악이 예배를 이끌어 갈 때도 많다. 절기나 특별예배를 준비할 때도 음악이 많은 부분을 채워간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음악이라는 특성 때문에 찬양대와 찬양팀에 속한 성도들이 겸손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일때도 있다. 쉽게 말해 ‘실력 좋은 사람’ 을 말한다. 신앙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는데 위치가 사람을 만들듯 자신의 이름을 더 알리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곤 한다.

코로나19로 교회는 변화를 따라가고 인정해야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당연히 예배도 변화는 필요했고, 그것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또 다시 감투가 주어졌다. 기독교의 전통성은 지키면서 변화하는 시대의 문화를 교회 안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온라인 예배 송출은 이제는 너무도 당연했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선보여야 했다. 경쟁이 된 것이다. 협력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경쟁구도 예배는 점점 무너져 내렸다.

아직도 교회에서는 성도를 사람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보다 미워하고 질투심에 사로 잡혀 살아간다. 복음성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의 가사를 보면,

[1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후렴]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가사)

가사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자’ 는 가사가 나온다. 특히 후렴의 가사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사랑하라’고 찬양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sup>65</sup> 우리는 이미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며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면서 ‘내 신앙은 진짜야’, ‘나만 한 믿음 없지!’ 하는 가짜 신앙에 붙잡혀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 이 마음이 커지니 삶의 여유가 없고, 경쟁하는 신앙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헐뜯고 누르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다.

예배팀을 담당하면서 걸으로는 다 좋은 관계처럼 보이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고 놀라고 안타까웠다. 이런 관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교회 문화의 문제, 방침의 문제, 체계의 문제, 경영과 운영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한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이나는 것이다. 성경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실수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 말고 다른 것이 보이니 의심하는 마음만 커지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니 주님께 벌을 받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이라고 말씀한다.<sup>66</sup>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 아동부에서부터 장년의 예배까지 모든 곳에서 찬양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보고 더욱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정말 감사한 것은 같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것이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sup>65</sup> 마태복음 22:39, 마가복음 12:31, 누가복음 10:27 갈라디아서 5:14

<sup>66</sup> 릭 워렌, 『회복으로 가는 길』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7), 49.

성도님들과 한 단계 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연합하는 힘이 있다. 온 성도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의 팀 사역이다. 찬양은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준비되는 모든 예배와 행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주변의 이야기들과 상황들이 내 신앙을 흔들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고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와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이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고백하는 삶, 신앙의 본질을 놓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 참고문헌

### 1. 국내서적

- 가진수. 『모던워십』. 부천: 워십리더, 2022.
- 가진수. 『예배 찬양 인도』. 서울: 워십리더, 2023.
- 김대권. 『예배와 음악』. 서울: 그리심, 2006.
- 김대권. 『교회음악 철학』. 서울: 중앙아트, 2008.
- 김명환. 『찬양의 성전』. 서울: 새찬양후원회, 2004.
- 김병삼 외. 『올라인 교회』. 서울: 두란노서원, 2021.
- 김세광. 『예배와 현대 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김순환. 『예배학 총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김재권. 『회복하는 교회』.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 나규진. 『교회음악개론』. 서울: 가온음, 2014.
- 문지영. 『예배와 음악』. 서울: 가온음, 2019.
- 문희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서울: 예수전도단, 2003.
- 박철순. 『예배콘티 작성의 원리와 실제』. 파주: 워십빌더스, 2017.
- 박철순. 『예배콘티 작성의 원리와 실제』. 파주: 워십빌더스, 2017.
- 백성훈. 『팀 사역의 원리: 예배팀 운영의 실제』. 서울: 기독교문화선교회, 2018.
- 이충섭. 『교회학교 해봤어!』. 서울: 누가출판사, 2021.
- 전영훈. 『그 한사람 예배자에게』. 서울: 죠이선교회, 2020.
- 하재송. 『교회음악의 이해』. 서울: 중앙아트 제이엔에이뮤직, 2017.

### 2. 외국서적

Marva J. Dawn. *A Royal Waste of Time*.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N. Lee Orr. *The church music handbook: For pastors and musicia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Franklin M. Segler. *Understanding, Preparing for, and Practicing Christian Worship, 2nd ed.*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6.

### 3. 번역서적

A.W. 토저/유정희 옮김. 『예배』. 서울: 규장, 2019.

릭 워렌/김주성 옮김. 『회복으로 가는 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7.

밥 소르기/최혁 옮김.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 서울: 두란노서원, 2005.

잭 R. 테일러/이석철 옮김. 『찬양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서울: 요단출판사, 1985.

존 맥아더/유정화 옮김. 『예배』. 서울: 아가페출판사, 2022.

테리 로/전가화 외 옮김. 『찬양과 경배의 능력』. 서울: 믿음의집, 1988.

### 4. 인터넷

국민일보. “대형교회일수록 ‘신앙 느슨해져’ … 매일 말씀 묵상으로 돌파구”. (2023)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9293> [2025.3.12. 최종 접속]

조종건 설교예화. “예배의 시작과 끝, 찬양대”, 조종건 (2014)

<https://blog.naver.com/idream2030/140209613363> [2025.3.12. 최종접속]

영원한 언약-복음. “찬양이란” (2025)

<https://cafe.naver.com/8h1234/26222> [2025.3.14. 최종 접속]

말씀보존학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024)

<https://www.biblemaster.co.kr/bread.php?y=2024&m=08&d=14> [2025.3.14. 최종접속]

ccmpilgrim 블로그. “찬양(Praise)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의미” (2008)

<https://m.blog.naver.com/ccmpilgrim/10035022293> [2025.3.14. 최종접속]

ccmpilgrim 블로그. “찬양(Praise)에 사용된 헬라어의 의미” (2008)

<https://m.blog.naver.com/ccmpilgrim/10035022276> [2025.3.14. 최종접속]

ccmpilgrim 블로그. “찬양해야 할 이유들” (2008)

<https://m.blog.naver.com/ccmpilgrim/10035022317> [2025.3.14. 최종접속]

ccmpilgrim 블로그. “찬양의 수단과 방법” (2008)

<https://m.blog.naver.com/ccmpilgrim/10035022119> [2025.3.14. 최종접속]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구약시대의 찬양” (2024)

<https://lilaacpoem.tistory.com/11172> [2025.3.13. 최종접속]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Taeyong Choi

Place and Date of Birth: Suwon, South Korea, October 27, 1989

Parent's Names: Sungkyun Choi and Younghee Kang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b>Young Saeng High School</b> 22, Seobu-ro 2198beon-gil, Jangan-gu, Suw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Feb 15, 2008
<b>Hyupsung University</b> 72, Choerubaek-ro, Bongdam-eup, Hwa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h. B	Feb 14, 2014
<b>Hyup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b> 72, Choerubaek-ro, Bongdam-eup, Hwa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h. M	Feb 12, 20 16
<b>Drew University Theological School</b> 36, Madison Ave, Madison, NJ 07940I	D.Min	May 17 2025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Taeyong Choi

Jan 30. 2025